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9~1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3	절수행입문(불교수행입문2)	교육원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6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 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7	언어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8	푸른수행 파란행복	종원	맑은소리맑은나라
9	불교하는 사람은:김성철 교수의 실천불교	김성철	오타쿠
10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소설로 만나는 선지식 '탄허'의 진면목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백금남 지음
피플워치
2만6000원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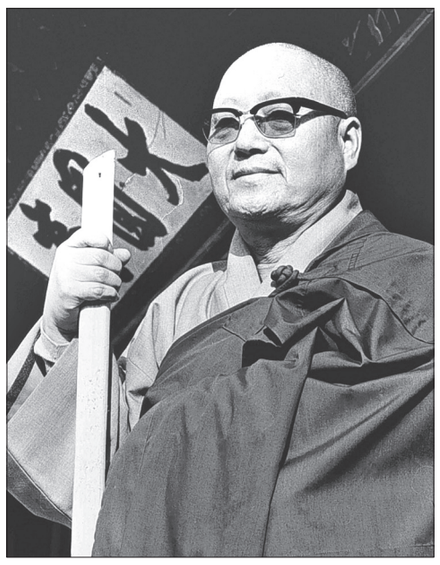
"1983년 6월 5일, 오대산 월정사 방산굴에서 세수 일흔하나, 법랍 마흔아홉의 한 노승이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탄허는 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유시를 앞두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영화 '관상'의 원작과 〈십우도〉 등으로 알려진 작가 백금남이 신작 소설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이하, 천하의 지식인이여)를 출간했다.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금세기 최고의 학승이자 선승으로 추앙받는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엮은 전기적 소설이다. 탄허 스님은 10만 장이 넘는 번역 원고를 남겼음에도 자신의 사적인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작가는 탄허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의 모든 경서를 섭렵하고 노자와 장자까지 두루 통달했음에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혹을 풀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 유생의 모습, 갈등과 방황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의식적 변화 과정 등은 백금남 작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백 작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로 엮어냈다. 출가 전인 김금택이 유가와 도가의 교리만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그의 스승이었던 이극종이나 당대의 선지식들과의 대담을 통해 구체화하는가 하면, 불가로의 귀의에 있어서는 인연법에 기인한 예지몽을 통해 나병환자들의 피고름을 손수 닦아내며 돌보았던 경허 선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불가의 스승인 한암 스님의 출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출가자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풀어냈다.

이처럼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설명이나 주장이 아닌 '이야기'로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소설이다. 이 같은 작업은 작가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백금남 작가는 〈십우도〉 〈칼의 어록〉 〈붓다 평전〉 등 전작에서 이미 자신의 깊은 불교적 정서와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또 다른 무늬의 불가적 색채로 '탄허'라는 인물을 그려냈다.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선승인 탄허 스님.

탄허 스님 삶 · 사상 '이야기'로 엮어
어린 시절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화 · 설법 · 대담 · 지인 증언들 토대로
불교 몰라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전작과 또 다른 불교적 색채 담아

이번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굳이 불교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식의 근간이 되어왔음에도 항상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구체적이고 가깝게 다가온다.

탄허 스님은 독립운동가인 율제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의 전 과정을 공부했다. 김제 제일의 천재로 통했던 그의 학문적 성취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깊었다. 그러나 유학의 모든 경전을 독파하고도 삶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22세의 나이에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한다. 입산 후 탄허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용맹정진을 시작했고, 수행 2년 만에 상원사 승려연합수련소에서 〈금강경〉 〈기신론〉 〈범망경〉 등을 강의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고암, 탄옹 스님의 청에 의해 〈화엄경〉과 〈화엄론〉을 강의하는 등 학승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당시 탄허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강자들에게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물으시오.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어찌 명전천추(名傳千秋)할 수 있겠소. 모르면 묻고, 묻지 않는다면 다 안 것으로 알고 내가 물어보리라"고 했다.

탄허 스님은 학승뿐만 아니라 선승으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스님의 강의가 소문을 타면서 당대의 내로라하는 선승들도 그의 강의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최고의 선승으로 불리던 전강 화상은 탄허 스님의 강의를 들은 후 후학인 탄허 스님의 절을 맞절로 받았다.

이처럼 탄허 스님은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고 선(禪)과 교(敎)를 겸비한 석학이자 선지식이었다. 그런 탄허 스님은 종종 주위를 놀라게 하는 예지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종명일을 예언한 일은 승가는 물론 세간에도 잘 알려진 일화다. 모두에 언급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실존의 그 이야기다.

시주의 은혜를 무겁게 여겼던 스님은 59세부터 돌을 갈아 죽을 쑤어 먹으며 수행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몸소 실천에 옮긴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스님은 암이라는 큰 병을 얻게 된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에 제자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스님은 제자들에게 병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며, 자신의 종명일을 모두에 언급했던 6년 뒤인 음력 4월 24일 유시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6년을 더 살고 예언일에 원적에 들었다.

탄허 스님은 자신의 종명일 말고도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이기붕의 죽음, 박정희 前 대통령의 총기 사망 등 세간의 큰 사건들을 예언한 바 있다.

백금남 작가가 5년 동안 집필한 소설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탄허 스님이 남긴 일화, 설법, 대담, 지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유추해 완성됐다. 따라서 글의 서술에 작가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시간의 맥을 짚어가며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소설은 지금까지 대부분 '학승'으로 조명되었던 탄허 스님을 여러 면에서 좀 더 깊이 조명했다고 할 수 있다.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세상의 앞날과 자신의 종명일까지 내다본 탄허 스님의 치열했던 생애를 만날 수 있다.

불교 잡지 톺아보기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용선

월간 〈불광〉 12월호



불광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월간 〈불광〉 12월호는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용선'을 특집 주제로 다뤘다.

반야용선은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천도재 같은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의식구다. 〈천수경〉 독송시에도 '어서 속히 반야선에 오르기(원아속승반야선願我速乘般若船)'를 염원하기도 한다. 이렇듯 불교 의례에는 지혜를 뜻하는 '반야'와 힘을 상징하는 '용'이 만나 반야용선이 주요하게 등장한다.

월간 불광 12월호에서는 반야용선 신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불화를 통해 살펴본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반야용선 그림은 의외로 미륵신앙과 관련된다. 13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미륵하생변상도〉에 용선이 처음 등장하는데,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 법회를 여는 곳으로 향하는 두 척의 배가 그려져 있다. 남녀를 각각 태운 두 척의 반야용선이 향하는 곳이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설법하는 용화삼회(龍華三會)인 것이 의외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는 반야용선은 15세기 조선시대에 이르러 등장한다. 또 불화마다 배에 탑승하는 불보살이 달라지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초기의 아미타 삼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에서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이 추가로 등장하는 신앙 형태의 변화도 알 수 있다.

죽음 의례에서 '배'와 '용'이 등장하는 다양한 문화권도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에 오래된 울주 암각화에도 배와 용은 사람들의 행렬과 더불어 등장한다. 아울러 삼국시대 토기 문화, 이집트와 서양, 일본의 죽음 의례에 등장하는 배도 살펴본다.

신중일 기자

불교 성지순례길 의미를 살피다

월간 〈불교문화〉 12월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간하는 월간 〈불교불화〉 12월호 특집은 '불교 성지순례길'이다. 성지는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으로, 과거의 길에서 현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내일을 준비한다는 순례길의 의미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월간 〈불교문화〉 12월호에서는 세계 각 종교에서의 성지순례의 의미와 함께 불교 성지순례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정을 탐험하고 그 속에서의 의미와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을 살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불자에게 성지순례의 의미'를 주제로 성지순례가 단순히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종교적 영감과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담는다고 했다.

〈인도 네팔 순례기〉 저자인 각전 스님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길- 불자는 왜 인도에 가는가'를 주제로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와 같은 4대 성지를 소개하며 성지순례가 정신을 향상시키고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일본의 성지순례길- 과거의 길을 걸어 현재의 삶에서 내일로'를 주제로 쿠마노 옛길, 시코쿠 88개소 순례길을 소개했으며, 권중서 정견불교미술연구소장은 '한국의 성지순례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삼보사찰,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서원이 있는 33관음성지, 부처님이 시공을 초월해 상주 불멸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경주남산 순례길을 전했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종교에서 성지순례의 의미'에서 성지는 거룩함과 일체가 되려는 욕구 때문에 이끌리는 곳이라고 말하며 이슬람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지순례 실태와 특징을 조명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